

sound memoir- dripping and ringing

소리 회고 - 떨어지는 울리는

sound memoir는 제 녹음 아카이브에 있는 긴 소리 녹음물을 듣고 천천히 기억을 모아 소리로 회고하는 오디오 작업입니다.

제가 살았던 장소들과 머물렀던 순간들로 이루어진 사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시간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고, 그 곳으로 제 마음은 계속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오디오 믹스는 그 마당 한 켠에 있던 책창고에서 녹음한 빗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녹음물을 다시 찾고 고르면서 유독 비오는 날 녹음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녹음하던 당시에 녹음 버튼을 누른 이유는 모두 달랠것지만 그로부터 시간의 거리를 두게 된 지금, 새롭게 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귀로 따라가면서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 떠오릅니다. 떨어지는 소리는 무언가를 새기게 하거나 다시금 기억에서부터 떠내도록 유도하는 어떤 힘을 지닌 것은 아닐까? 내게 녹음 버튼을 누르게 했던 힘과, 내가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힘 사이에 유사성이 있지는 않을까?

작업을 하면서 버지니아 울프의 자전적 에세이 <지난날의 스케치>를 읽었습니다. 작가가 글의 첫 장에서 썼듯이 이 글은 명확한 형식 없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살로) 돌연 중단되어 미완의 원고로 남았습니다. (사후 『Moments of Being』이라는 제목의 회고집에 한 편의 글로 수록되어 발간되었습니다) 돌연한 중단이 이 글의 마지막이 되는 것은 어쩌면 회고록이 끝나는 적절한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뜨개바늘에 꿰어져 반은 모양을 갖추고 반은 실패에 감겨 있는 뜨개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에세이를 읽는 경험은 작가의 담담한 목소리와는 별개로 꽤 강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저에게 그간 잊고 있던, 창고 안에 넣고 덮어두었던 기억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부드럽게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손짓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제 기억을 듣는 길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글로든 소리로든 쓰지 않고 기억을 꺼내어 회상을 이어가기란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오디오 믹스는 제가 기억들로 들어가는 통로로 구성하고 그를 통해 듣게 된 것 입니다.

도심 속 뒷산과 제주 집 주변 산책길, 어느 산간지역의 계곡 등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만난 녹지와 작은 자연들에서 온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저의 듣기나 이동을 포함하여) 작은 사건과 행위들이 부단히 일어나고 있었고 저는 편집과 제한적인 샘플링을 통해 연결, 배치하여 그 사건들과 움직임들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그 방식은 다소 비확정적으로 열어두었습니다. 위치도 시간도 모두 달랠지만 거기엔 마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라는 의식 없이도 총만했던 순간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빗방울을 듣고 들여다 보는 일과 피아노, 기타, 목소리 같은 악기들로 소리 내는 일 사이를 경계 없이 오갔던 지난 발자국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꼬리가 긴 소리를 내는 한 여자의 환희에 찬 얼굴이 물 아래 잠상처럼 떠오릅니다. 흩어지고 조각나고 부서졌다고 여겼던 것들이 온전하게 거기 있었습니다. 단절된 것은 나의 의식, 기억,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둥글고 투명하게, 고정되지 않고 물렁이는 상태에서 그 곳에 잠겨 들습니다. 완고해지는 마음처럼 귀가 굳어지지 않도록 내가 아는 소리라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때 종종 편집을 멈추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소리가, 하나의 기억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려고 했습니다. 열어지기도, 멈추기도 하고 왜곡되거나 섞이기도 합니다.

열고, 닫고, 펼치고, 넘기고, 닫고, 내려가고, 틀고, 지속되고, 중단되고, 사라지고, 떨어지고, 울리고, 모아지고, 잠기고, 새어나오고, 흐르고, 끊기고, 잘리고, 이어지고, 듣고, 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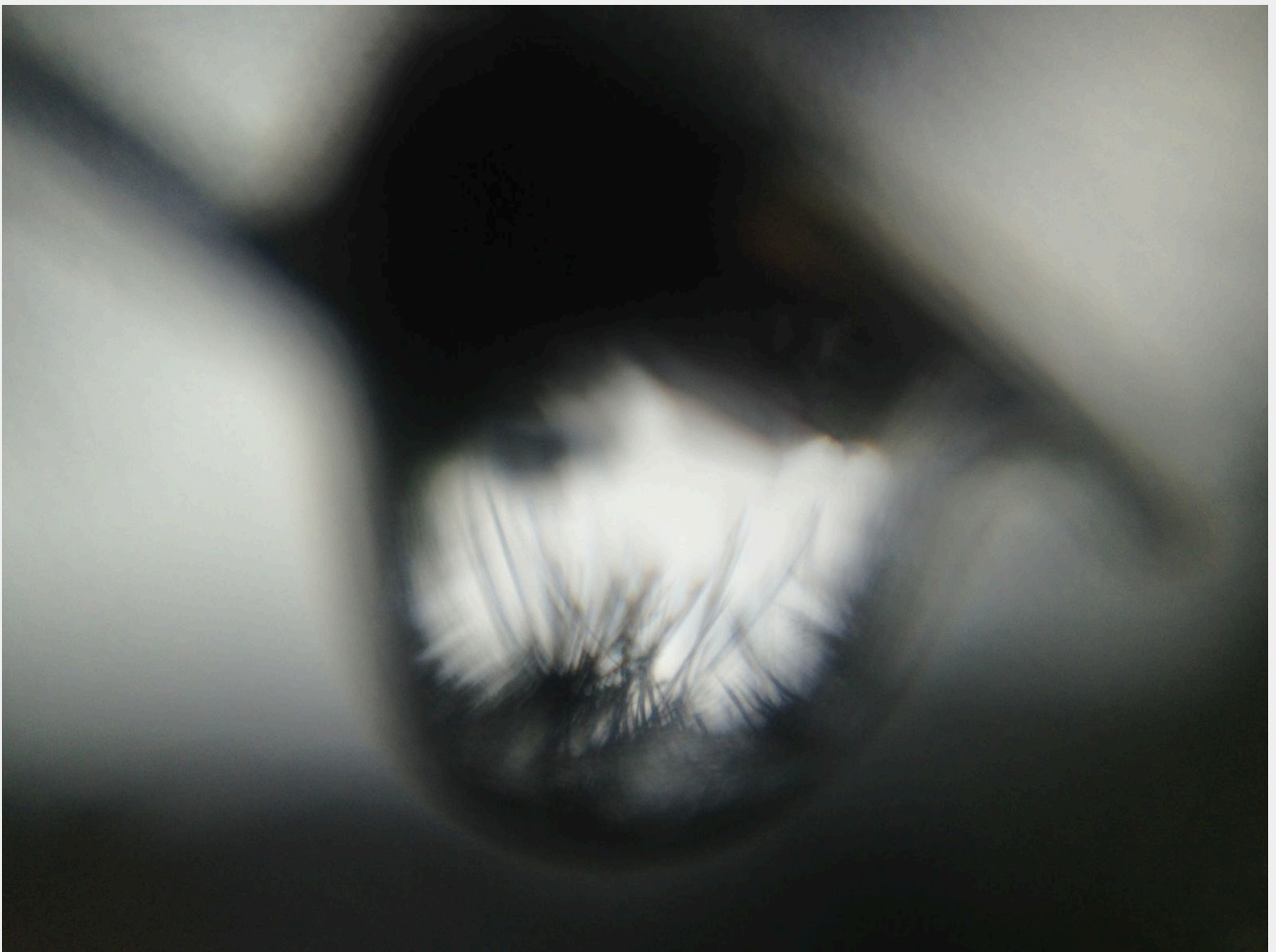
단절된 것으로 보였던 것들이 단속하는 리듬으로 인지되기까지 충분한 시간과 인내를 자신에게 허락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멈추고 멀어져다 다시 시작하기를 여러번 반복해야하는지도요. 제가 부서졌다고 슬퍼했던 것들의 실재는 한 번도 부서진 적이 없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면서도 씨앗처럼 그 자체로 완성인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뭇잎을 나무에서 부서진 것으로 보던 시각을 교정하며 나뭇잎과 나무를 다시 봅니다.

날들 위에 날들이 낙엽처럼 포개지고, 서툰 몸들이 서툰 몸짓으로 제 자리를 찾아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게 내렸던 셀 수 없이 많은 빗방울들이 그러했듯이 음과 소리가 기억을 다지고, 다시 부르는 힘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일련의 소리 회고에 다음 트랙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것은 스스로 제 방식을 찾을 것이며, 만일 찾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어린 희망 앞 속에서 나는 첫 기억의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 따옴표 안은 울프의 문장을 빌려 온 것이며, 그가 타자기 원고에 남긴 수정 표현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막연한 희망을 앞으로 끊임없이 고쳐갔던 흔적이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글 ◦ 사진 김지연

[sound memoir - dripping and ringing], Jiyeon Kim
audio mix(20min 31sec), text

* 첫 공개: 2023년 3월 24일, 14번째 TBC 방송, 기획 토폴로 토폴루브 연합

* 듣기 및 후원 링크:

<https://11ep.bandcamp.com/album/sound-memoir-dripping-and-ringing-3>